

2016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프랑스 국립 오르세미술관 전**



전시기간	2016년 10월 29일(토) ~ 2017년 3월 05일(일)			
전시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사업담당부서	예술의전당 미술부			
구 분	성 명		연락처	메일주소
홍보담당자	지엔씨미디어	김현지 차장	02-325-1085	<a href="mailto:graymv@gncmedia.com">graymv@gncmedia.com</a>
	예술의전당	김경민 대리	02-580-1053	<a href="mailto:kmkim@sac.or.kr">kmkim@sac.or.kr</a>
사진자료	<a href="http://pr.sac.or.kr">http://pr.sac.or.kr</a>			

## 프랑스 국립 오르세미술관 전

전시기간	2016년 10월 29일(토) - 2017년 3월 5일(일)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휴관 (10/31, 11/28, 12/26, 2/27)
관람시간	<b>하절기(3월-10월)</b> : 오전 11시 - 오후 8시 (입장마감 : 오후 7시) <b>동절기(11월-2월)</b> : 오전 11시 - 오후 7시 (입장마감 : 오후 6시)
장 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주 최	오르세미술관, 예술의전당, 지엔씨미디어
후 원	외교부, 주한프랑스대사관, 주한프랑스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문화홍보원
협 찬	신영증권, 롯데손해보험, 대한항공, 제이씨데코, 신세계조선호텔, 세븐일레븐
미디어후원	네이버
입 장 권	<p><b>성인 (만 19세-64세 / 대학생 및 일반) : 13,000원</b>  <b>청소년 (만 13세-18세 / 중, 고등학생) : 10,000원</b>  <b>어린이 (만 7세-12세 / 초등생) : 8,000원</b>  <b>유아 (48개월 이상-미취학아동) : 6,000원</b></p> <p>* 특별할인          예술의전당 후원회원, 골드회원 : 2,000원 할인(1인 4매)          예술의전당 블루회원 : 2,000원 할인(1인 2매)          20인 이상 단체 : 2,000원 할인(정가기준)          48개월 미만(증빙서류 지참 시) : 무료          65세 이상(신분증 지참 시) : 6,000원(단체 5,000원)</p>
문의 및 예매	<p>일반관람문의 02-325-1077~8          단체관람문의 02-325-1077~8 / orsay2016@gncmedia.com          입장권 예매 인터파크          네이버예약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a href="http://www.sac.or.kr">www.sac.or.kr</a></p>
주요 작품	<p><b>장 프랑수아 밀레의 &lt;이삭줍기&gt;와 빈센트 반 고흐의 &lt;정오의 휴식&gt;을 비롯하여, 오르세미술관을 대표하는 명작 회화와 데생 130 여점 전시</b></p> <p>이번 전시는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한불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며 열릴 뿐만 아니라, 오르세미술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특별전이다. 뜻 깊은 이번 전시를 위해 장 프랑수아 밀레의 &lt;이삭줍기&gt;, 빈센트 반 고흐의 &lt;정오의 휴식&gt;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걸작 중에서도 한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명작의 이례적인 특별 대여가 이루어졌다. 밀레, 고흐를 비롯한, 모네, 고갱, 세잔, 드가, 들라크루아 등 19세기를 빛낸 거장들과 그들이 남긴 명작 130 여점을 만날 수 있다.</p>

## 1. 전시 소개

### 1>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밀레의 '이삭줍기' 한국에 오다

이번 '프랑스 국립 오르세미술관 전'은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를 맺은 지 130주년이 되는 올해를 맞아 '한불상호 교류의 해'를 기념하며 열리는 특별전이다. 이번 전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과 프랑스 간 친목 도모와 교류의 장이 열린 뜻 깊은 2016년을 매듭짓는 중요한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우호적인 양국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 관람객들을 위해, 한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오르세 미술관의 가장 대표적인 걸작, 장 프랑수아 밀레의 '이삭줍기'가 특별히 한국을 찾아온다.

### 2> 밀레를 존경한 거장 빈센트 반 고흐가 탄생시킨 명작 '정오의 휴식', 수십 년만의 이례적인 해외 반출로, 서울에서의 전시가 성사되다

빈센트 반 고흐는 밀레를 예술적 멘토와 같이 존경했다. 고흐의 '정오의 휴식'은, 밀레가 남긴 '정오의 휴식'을 보게 된 고흐가 자신만의 화풍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작품이다. 작품의 보존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고흐의 '정오의 휴식'은, 오르세미술관 개관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 이외 지역으로 단 한차례도 반출된 적이 없다.

오르세미술관은, 이번 특별 전시만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이 명작의 해외 전시를 전격 결정했다. 이번 전시는, 위대한 거장 고흐가 완성한 걸작을 통해, 거장이 존경한 또 다른 거장 밀레의 숨결까지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 3> 역에서 미술관으로.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이 탄생시킨, 세계적 명성의 프랑스 국립 오르세 미술관

1900년, 동시대 최고 시설을 갖춘 오르세 기차역이 빅토르 알루의 설계로 세워진다. 급변의 시대를 지나며 임무를 모두 완수한 오래된 기차역은 20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기차역에서 미술관으로의 혁신적인 변모를 도모한다. 오르세 미술관은 이처럼,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비로소 그 문을 열게 되었다. 그리고, 당대 예술가를 지원하고 그 예술적 가치를 후대까지 길이 보전하고자 했던 당시 프랑스 정부가 방대한 규모로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이 바로 오늘날 오르세 미술관의 화려한 컬렉션의 근간이 되었다.

미술관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에서부터 이처럼 수많은 역사적 의미와 상징을 내포하고 있는 오르세 미술관이 올해 개관 3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한 해를 맞았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오르세 미술관에 있어 역사적인 이번 2016년을, 프랑스 내에서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대대적이고 권위 있는 전시를 통해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이번 '프랑스 국립 오르세 미술관 전' 서울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 1. 전시 소개

### 4> 다양각색, '19세기 다양한 미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전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각축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19세기는 서양 미술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 중 한 시기로 기록되고 있다. 19세기의 예술은 20세기 이후 현대 예술에 이르기까지 그 예술적 근원이 되며 극도로 풍요로운 양상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토록 뜨거웠던 미적 세계를 바탕으로 화가들은 저마다 기적을 만들어냈고, 천재적인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이번 '프랑스 국립 오르세미술관 전'은 바로 이렇게, 19세기에 풍성하게 전개된 다양하고도 기적적인 미의 세계를 한 자리에서 펼쳐 보이하고자 기획되었다.

### 5> '이삭줍기', 한 명의 거장의 손에서 그려진 수만 개의 선으로부터 시작되다.

오르세 미술관이 소장한 걸작 회화들과 더불어, 회화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그 근간이 되는 데생 작품들을 함께 이번 전시를 통해 소개한다. 데생 작품들은 특히, 작품 보호의 목적으로 전시실에서의 상설 전시가 매우 어려운 점이 특징이다. 중요하고 상징적인 여러 의미를 띤 이번 특별 전시를 위해 오르세 미술관은 주요 데생 작품들의 특별 대여를 진행했다. 오르세 미술관이 소장한 걸작 회화와 데생 작품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 주는 전시로서는 이번 전시가 최초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 2. 전시 구성

이번 '프랑스 국립 오르세미술관 전'은 오르세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명작 중에서도 장 프랑수아 밀레의 '이삭 줍기'와 빈센트 반 고흐의 '정오의 휴식' 등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주요 걸작들을 엄선하여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서양 미술계에서 특히 풍요로웠던 19세기를 중심으로, 함께 공존하며, 한데 뒤섞였던 많은 거장들과 그들이 남긴 명작들을 크게 5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소개한다. 각 주제를 중심으로, 대표 작품들 간의 대비를 보여줌으로써, 당시 서로 커다란 영향을 주고 받았던 각 예술사조의 특징과 미술사의 흐름을 살펴보는 전시가 구성되었다.

### 1>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낭만주의 특유의 힘 있는 필치를 구사한 외젠 들라크루아의 작품은 대상을 이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고전주의와 색의 사용과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 확연히 대조된다.

### 2> 아카데미즘과 사실주의

일상적인 장면을 사진처럼 묘사했던 귀스타브 쿠르베의 화풍은 신화나 역사, 종교를 주제로 다룬 작품들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여 후대 화가들에 영향을 끼친다.

### 3> 인상주의와 자연주의

장 프랑수아 밀레는 대기와 빛의 표현에 있어서 클로드 모네, 카미유 피사로, 알프레드 시슬레 등 인상주의 화가들에 길을 열어 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주의가 회화적 혁신을 일구어 내기도 했다.

### 4> 상징주의와 절충주의

인물, 신화나 꿈 속의 한 장면 등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주제를 감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상징주의는 19세기 회화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이다. 반면, 신체 표현에 있어서는 아카데미 화풍을 따르면서도 그 형태를 한결 자유롭게 처리하는 절충주의를 통해 화가들은 정해진 틀에서 해방된다.



### 5> 20세기 예술의 다양한 원천

1886년은 근대 회화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인상주의의 주인공들은 저마다 훨씬 더 과감한 방향으로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고, 당시 이미 성숙기에 도달했던 인상주의 양식을 뒤흔드는 새로운 화가들도 등장했다.

특히 '이삭 줍기'와 같은 걸작을 그린 장 프랑수아 밀레를 최고의 화가로 손꼽았던 빈센트 반 고흐는 실제로 밀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정오의 휴식'과 같은 명작을 완성시켰다. 이처럼 후대의 화가들 역시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에서 빛의 표현에 감명을 받아 예술사의 걸작들을 남기게 된다.

### 3. 전시 주요 작품

작품 게재 시 각 작품별 캡션과 크레딧을 꼭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장 프랑수아 밀레 (1814-1875) Jean-François Millet <b>이삭 줍기 Des glaneuses</b> 1857, 캔버스에 유채, 83.5 x 110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
	<p>빈센트 반 고흐 (1853-1890) Vincent Van Gogh <b>정오의 휴식 La Méridienne</b> 1889-1890, 캔버스에 유채, 73 x 91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
	<p>폴 고갱 (1848-1903) Paul Gauguin <b>브르타뉴의 여인들 Paysannes bretonnes</b> 1894, 캔버스에 유채, 66.5 x 92.7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
	<p>윌리엄 부그로 (1825-1905) William Bouguereau <b>포위 L'Assaut</b> 1898, 캔버스에 유채, 155.8 x 106.2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

### 3. 전시 주요 작품

작품 게재 시 각 작품별 캡션과 크레딧을 꼭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오귀스트 르누아르 (1841-1919) Auguste Renoir <b>피아노 치는 소녀들 Jeunes filles au piano</b> 1892, 캔버스에 유채, 116 x 90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
	<p>펠릭스 발로통 (1865-1925) Félix Vallotton <b>단장하는 여인들 Femmes à leur toilette</b> 1897, 두꺼운 종이에 유채, 48.1 x 60.2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
	<p>장 프랑수아 밀레 (1814-1875) Jean-François Millet <b>양치는 소녀와 양 떼 Bergère avec son troupeau</b> 1857, 캔버스에 유채, 81 x 101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
	<p>쥘 르페브르 (1836-1911) Jules Lefebvre <b>진리 La Vérité</b> 1870, 캔버스에 유채, 264 x 112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

### 3. 전시 주요 작품





작품 게재 시 각 작품별 캡션과 크레딧을 꼭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피에르 푸비 드 샤반 (1824-1898) Pierre Puvis de Chavannes <b>희망 L'Espérance</b> 1871-1872, 캔버스에 유채, 70.5 x 82.2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
	<p>에밀 베르나르 (1868-1941) Emile Bernard <b>목동의 휴식 Le repos du berger</b> 1904-1908, 캔버스에 유채, 120 x 150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
	<p>르네 세소 (1867-1952) René Seyssaud <b>올리브 나무들 Les oliviers</b> 1898, 두꺼운 종이에 유채, 100 x 81.3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
	<p>카미유 피사로 (1830-1903) Camille Pissarro <b>빨래를 너는 여인 Femme étendant du linge</b> 1887, 캔버스에 유채, 41 x 33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



### 3. 전시 주요 작품

작품 게재 시 각 작품별 캡션과 크레딧을 꼭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모리스 드니 (1870-1943) Maurice Denis <b>닫힌 정원 안의 여인 La Dame au jardin clos</b> 1894, 캔버스에 유채, 55 x 74.5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
	<p>장 레옹 제롬 (1824-1904) Jean-Léon Gérôme <b>닭싸움을 시키는 젊은 그리스인들</b> <b>Jeunes Grecs faisant battre des coqs</b> 1846, 캔버스에 유채, 143 x 204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
	<p>귀스타브 모로 (1826-1898) Gustave Moreau <b>갈라테이아 Galatée</b> 1880년경, 패널에 유채, 85.5 x 66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
	<p>외젠 들라크루아 (1798-1863) Eugène Delacroix <b>호랑이 사냥 Chasse au tigre</b> 1854, 캔버스에 유채, 73 x 92.5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

### 3. 전시 주요 작품

작품 게재 시 각 작품별 캡션과 크레딧을 꼭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모리스 드니 (1870-1943) Maurice Denis                  영원한 여름; 합창, 오르간, 사중주 그리고 춤                  L'Eternel Eté : le chant choral, l'orgue, le quator, la danse                  1905, 캔버스에 유채, 179 x 82.3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
	<p>에드가 드가 (1834-1917) Edgar Degas                  발레 Le ballet                  비단 위에 과슈, 19 x 60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
	<p>폴 세잔 (1839-1906) Paul Cézanne                  오른쪽 다리를 뒤로 빼고 양팔을 머리 위로 들고                  서 있는 여인의 누드                  Femme nue, debout, la jambe droite repliée, les bras levés                  수채와 흑연, 89 x 53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
	<p>피에르 보나르 (1867-1947) Pierre Bonnard                  지중해 Méditerranée                  1921년경, 연필과 과슈, 48.3 x 63.2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
	<p>폴 시냐크 (1863-1935) Paul Signac                  햇볕 아래 생트로페즈 항구의 집들                  Maisons ensoleillées sur le port de Saint-Tropez                  1895, 석판화 위에 수채, 17.4 x 21 cm                  ©RMN-Grand Palais/Musée d'Orsay - GNC media, 2016</p>